

茶

28 제485호
서기 2004년 8월 4일 수요일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 culture

‘지식의 창고’라 불리는 잡지는 신문과 함께 한 시대의 기록물이자 문화지표를 가늠하는 잣대다. 최근 국내 차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차 관련 소식을 전하는 잡지나 매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관련 행사 소식은 물론 차 문화의 흐름과 전망을 보여주는 차 관련 잡지를 살펴본다.



차 문화 확산에 일조



▶ 차 잡지 변천사

국내 최초의 차 잡지는 1969년 8월 1일 창간된 월간 <다원(茶苑)>이다. 김용석 씨가 발행한 이 잡지는 아직 차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여서 커피나 생화차 등을 주로 파는 다방, 탐방과 화보, ‘심한 경쟁, 많은 비용, 어렵기만 한 다방운영’을 주제로 한 방담(放談) 등의 기사를 다뤘다.

여천차문화원 전통문화강좌

여천차문화원(원장 박운제)이 오는 9월 7일 개설하는 ‘제1기 전통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6개월 과정으로 다도와 판소리, 대금, 우리 춤 등을 배울 수 있다. (051)246-8821 cafe.daum.net/yeochuntea

8회 문경 칠석 차문화제

제8회 문경 칠석 차문화제가 8월 21일 오후 6시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문경다례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찻사발 품평회와 칠석다례, 두리차회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054)555-9055 www.munbyeong.com

▶ 차 문화 운동이 펼쳐지던 1980년대에는 본격적인 차 관련 잡지들이 여러 종 선보였다. 83년 발간된 월간 <다원>과 87년 이기행 씨가 선보인 월간 <다담(茶談)>, 88년 다심문화연구회가 펴낸 계간 <다심(茶心)> 등은 차 문화 운동으로 촉발된 차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들 잡지는 자체 설문조사와 기획기사 등으로 눈길을 끌었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경영난 등의 이유로 폐간됐다. 이 중 월간 <다담>은 발행인이 용운 스님과 성우 스님으로 이어지며 현재 한국다도협회에서 월간지로 펴내고 있다.

93년 발간된 계간 <다심>은 창간특집으로 ‘조선왕실의 차와 물’ ‘차생활 용어와 주제성’ ‘중국 의흥 자사다호 감상’ 등의 기사를 소개했다.

▶ 어떤 잡지가 있나

차 잡지는 크게 일반 잡지와 관련 단체에서 펴내는 회보를 들 수 있다. 월간지로는 현재 <차의 세계>와 <다도>, <Tea & People>이 발행되고 있다. 각기 안정적 독자층 기반으로 잡지 발간 외에도 다양한 차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중 2002년 창간된 <차의 세계>는 가장 널리 알려진 차 잡지다. ‘아름다운 차의 세상

을 열어갈 차 전문지’를 표방하고 창간된 <차의 세계>는 ‘차인과의 대화’ ‘차문화 기행’ ‘잃어버린 사발을 찾아서’ 등의 코너를 통해 오늘날 우리 차문화 흐름과 문제점, 전망 등을 담고 있다. 분량은 100여 페이지



<차의 세계>
흐름·문제점·전망 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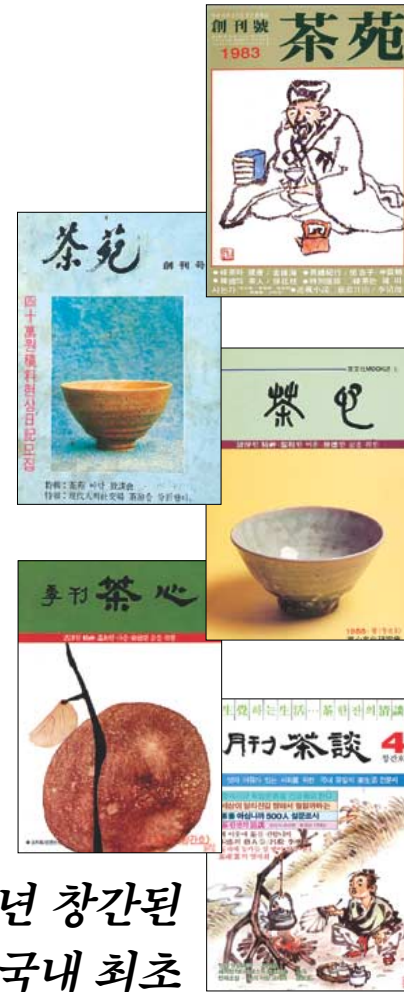


월간다도
업체탐방·화제대안 발굴



<Tea & People>
도예가·다구 집중 소개

지인판이고 8월 현재 통권 32호를 펴냈다. 1999년 첫 선을 보인 월간 <다도>는 ‘좋은 책 향기로운 삶’을 기치로 차계 소식과 흐름을 전한다. ‘업체 탐방’과 ‘화제의 다인’ ‘차를 만드는 향기를 따라’ 등의 코너가 있으며 8월 현재 통권 52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창간된 <Tea & People>는 도



69년 창간된 <다원>이 국내 최초

예가와 차 도구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잡지다. 윤종원 차문화공예연구소를 운영하는 김동현 편집인의 ‘도예가를 찾아서’는 차인들의 큰 관심을 받는 인기 코너. 차 관련 단체들이 월간 혹은 격월간으로

우리 사찰 차 모임

제주 약천사 전통다도반

특활화로 제주 차문화 이끈다



7월 27일 약천사에서 열린 여름불교학교 참가 어린이들에게 다도교육을 하는 모습.

제주도 여행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관광지인 약천사(주지 성공). 7월 26일 약천사에는 한복을 다소곳이 차려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약천사 문화원 전통다도반의 2기 수료식이 열리기 때문이다.

문화원 내에 전통다도반이 문을 연 것은 지난해 9월. 수료생은 이제 2기에 불과하지만, 약천사 다도모임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그동안 한국다도협회에서 교육을 맡아

오는 ‘만원’이다. 차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숙 교수(원광대 평생교육원, 한국차문화협회 연구전문사범)는 “다도반은 약천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차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며 “하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육이 아닌 자기 수행의 방편으로 삼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다도반 회원들은 매년 5월 서귀포 제주다원에서 ‘제주차 만들기

‘탐라다우회’서 출발한 자체 신행 모임

‘선차반’, 불가(佛家)차·명상 등 체계적 교육

‘탐라다우회’란 이름으로 차 교육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 지난해 문화원이 문을 열면서 약천사가 교육을 맡아 운영하는 자체 신행 모임으로 거듭난 것이다. 다도반은 현재 기초반과 중급반, 직장인반, 자격증반, 선차반 등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중급반과 선차반은 기초과정 수료 후 등록이 가능하다. ‘선차반’은 불가(佛家)의 차문화 배우는 강좌로 다도교육과 함께 발우공양과 명상, 참선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강좌는 일반인도 들을 수 있지만 정원이 10명 내외라 언제나 강

대회를 연다. 이 행사는 일반인들이 직접 차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산 차를 전통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또 하나 다도반만의 특징은 어린이 예절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방학 때마다 열리는 약천사 어린이 불교학교 예절강의에서 아이들에게 발우공양과 다도를 가르치고 있다. 제주도 차 문화를 이끌어갈 차인을 양성하는 전통다도반은 현재 9월 13일 개강하는 다도반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064)738-5000

인터뷰

김미숙 교수



“주위 사람들 배려하는 차인 양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약천사의 특성을 십분 살려 8월부터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엄마와 함께 하는 다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찰도 참여하고 차 문화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 제주까지 먼 길을 찾아가 다도반 교육을 하고 있다. “길은 멀지만 마음은 늘 다도반에 있다”는 김 교수는 “다도반 회원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늘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교수이자 (사)불전회 중정다례원 원장이기도 한 김미숙 교수는 매주 속초에

여수령 기자 snooky@buddhania.com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출고정가 1Set-12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 (74.8% 할인)

단! “500분” 제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儒·仙·華嚴 특강(CD18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중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판 매 책 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물: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신비의 마이산 탐사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관광과 방생을 한국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마이산

진안 마이산 탐사 063)433-2900, 0303 432-0652, 0072